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에배

**당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2026.1.18.

사도행전 9:3~7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오늘은 '당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심리학에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John Bowlby)가 정립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 피난처가 되어주는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 기지(Secure Base)'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힐끔힐끔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죠. 자전거를 배울 때 누가 뒤에서 잡아 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 엄마가, 그 사람이, 아이의 '안전 기지'이자 '뒷배'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지켜줄 '뒷배'를 찾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통장 잔고이고, 어떤 이에게는 권력 있는 인맥이며,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건강이나 스펙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굴 믿고 그렇게 당당해?" "당신 뒷배가 누구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당대 최고의 스펙과 열정,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뒷배를 가지고 위

퐁당당하게 길을 걷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교 권력자들을 뒷배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야 했던, 아무런 뒷배가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세상이 말하는 ‘뒷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뒷배’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성경 이름이죠. 요나가 사명을 받아 선교에 나섰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울이 그 곳에 갔던 이유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인 다메섹에 많이 모였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가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들려온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4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말이 저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퀴리오스]는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해 ‘주님’이라고 부르죠. 퀴리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는데 번역은 ‘선생님’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이 지금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학자들도 그 점을 알았기에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미있습니다. 짐작을 했음에도 그는 ‘누구십니까?’라고 묻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난 적도, 때린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쟁이’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에 의아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의 음성은 이에 대해 더욱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사도행전 9:5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예수님은 세상 종말까지 고뇌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발가락을

뻗으면, 입에서 “아아!” 소리가 나옵니다. 발가락이 뻗었는데 왜 입이 소리를 지를까요? 머리와 몸은 신경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의 고통이 곧 뇌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Union)’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 당하는 손해, 믿음을 지키려다 흘리는 눈물, 그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은 “그건 네 사정이고”라며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삶 (동조 현상)

그렇다면,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에 ‘동조 현상(Synchronization)’ 즉, 동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동영상을 보여 드린 적이 있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기의 메트로놈을 한 판 위에 올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박자로 움직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판 위에 있을 때 서로 파장이 맞으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같아지는 거죠.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이라는 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객체처럼 있지만 그 성령 위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유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임재라 부릅니다. 우리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뜻을 알지 못해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알지 못해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조’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살면서 “주님 내 뒤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때 주님은 나의 가장 확실한 뒷배가 되어주십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재녀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재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재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않고 버티고 견디며 서는 것, 그것이 주님과 마음을 동기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사도

있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끝까지 이기려 하지 않고, 조금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를 비워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호흡을 하는 거죠. 그때, 비록 세상에서는 악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과 연결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같은 박해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을 번개로 쳐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던 박해자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 바울로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던 상황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버리십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데리고 가고, 거부하는 자는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뒷배로 삼는 자는 결국 세상에 끌려다니다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뒷배로 삼는 자,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물결을 타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을 선택할 때, 주님은 여러분 등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느냐? 그를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파이프가 물을 통과시키면, 그 파이프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키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든든한 ‘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